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5년 제 37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1

학대사건 발생해도 폐원 못한다...안전망 밖의 체육학원

연합뉴스TV 신현정 기자

02

유도 유망주 학교훈련서 사지마비...안전 손 놓은 교육당국

MBC뉴스 공윤선 기자

03

"선수의 배를 향해 공을 수차례 찼다"...'전직 K리거' 임민혁, 노상래 울산 감독...

인터풋볼 주대은 기자

04

"교체도·인원도 없다" 시골 농구부의 기적...법성고, 5명 중 3명 국가대표·프로팀 '발탁'

프레스이안 박아론 기자

05

엘리트 체육 vs 스포츠 클럽, 경쟁 아닌 상생의 해법을 찾아서

CBS노컷뉴스 김조휘 기자

01

학대사건 발생해도 폐원 못한다…안전망 밖의 체육학원

연합뉴스TV 신현정 기자

2025-10-04 09:52:16

일러스트=연합뉴스TV화면 캡처

태권도와 축구 등 아동이 많이 다니는 체육학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죠.

하지만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체육학원은 일반 학원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이 매트에 거꾸로 방치됐다가 숨진 사건은 사회적 충격을 안겼습니다.

지난 5월 전남 해남에선 태권도 관장이 원생을 폭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22일 인천에선 한 태권도 사범이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성범죄와 폭행 등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이 취소된 사례는 수백여 건.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범죄 전과자가 체육시설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은 여전히 사후약방문에 머물고 있습니다.

체육학원이 일반 학원과 달리 학원법이 아닌 체육시설법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운영 시간과 교육 환경에 대한 제한이 없고, 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폐원 조치 규정조차 없습니다.

01

종사자 자격 관리도 교육부가 아닌 문체부와 지자체 몫인 탓에 필수 교육 이수 여부 모니터링 등도 허술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체육학원을 찾는 아동들이 학대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는 셈.

체육시설법 역시 학원법에 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체위)>

"기존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 안전 중심의 법이잖아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조항까지 담을 수 있도록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밀한 법적 보완이 이뤄지지 않는 한 체육시설 내 아동 학대 재발 방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02

유도 유망주 학교훈련서 사지마비...안전 손 놓은 교육당국

MBC뉴스 공윤선 기자

2025-10-10 20:38

일러스트=MBC유스데스크 TV화면 캡처

앵커

유도 국가대표 선수를 꿈꾸던 고교생 유망주가 학교 훈련 중에 사지마비가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손꼽히는 유도 명문인 이 학교에서 이런 위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학교의 침묵 속에 학생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교육당국은 사고가 일어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윤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밀어 밀어."

재활 치료사의 도움을 받아 힘겹게 어깨를 들어 올리는 고1 황경준 학생.

8개월째 재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황 군은 혼자서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사지 마비' 상태입니다.

하지만 불과 9개월 전엔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던 유망주였습니다.

2년 전 전국소년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도 명문인 보성고등학교에 입학해 꿈을 키워가던 지난 1월, 학교 동계 합숙 훈련 중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겁니다.

다른 체급인 동기생과 대련을 하던 중이었는데 당시 감독은 아예 자리에 없었고, 20대 코치 2명뿐이었습니다.

[황경준(가명)/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 2명이 점점 더 부추기면서 '더 해봐, 더 다른 기술도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 2008년에도 이 학교 유도부에서 동일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유도부를 운영 중인 보성중학교의 학생이 대련 중 목이 부러져 전신마비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이 사고와 관련해 학교법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학교 측은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배려해야 하고 특히 운동부의 경우, 교사가 위험한 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감독조차 없는 상황에서 훈련을 진행시킨 학교는 교육청에 사고 사실조차 보고하지 않았고, 교육청은 학교 탓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실)]

"학교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보고를 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이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1년에 1회 이상, 교육부의 운동부 방문 점검 지침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올해 8월 해당 학교 방문점검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사고 사실은 빠져있고 '규정 준수'라는 의견뿐입니다.

[김태경/황경준 학생 엄마]

"무책임한 거죠, 그냥. 다 방치해 놓고... 교육청에서고 어디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한 번이라도 왔었겠죠. '아 이렇게 사고가 나셨습니까'... 근데 전혀..."

02

[김태경/황경준 학생 엄마]

"무책임한 거죠, 그냥. 다 방치해 놓고... 교육청에서고 어디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한 번이라도 왔었겠죠. '아 이렇게 사고가 나셨습니까'... 근데 전혀..."

[정을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 당국이 안전불감증으로 손 놓고 있는 사이 심각한 사고를 당하고도 방치된 학생들이 얼마나 더 있을지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보고 체계를 포함한 학교 운동부 운영 점검 체계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선수의 배를 향해 공을 수차례 찼다"... '전직 K리거' 임민혁, 노상래 울산 감독 대행의 과거 폭행 주장

인터풋볼 주대은 기자

2025.10.10 06:11

일러스트=한국프로축구연맹

전직 K리거 임민혁이 최근 울산 HD에 부임한 노상래 감독 대행이 과거 선수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임민혁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노상래 감독 대행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울산이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고 노상래 대행 체제로 들어선다는 뉴스를 보고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켜다"라며 "나와 인연은 2017년 내가 신인으로 전남 드래곤즈에 입단했을 때 사제지간으로 시작됐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임민혁은 "신인 골키퍼에도 불구하고 날 K리그1에 데뷔시켜 준 감독님이라 마음 한켠에 감사함은 늘 가지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나는 오늘 뉴스를 본 뒤부터 손발이 덜덜 떨리고 하던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라고 더했다.

이어진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임민혁은 "그때의 만행을 기억하나?"라며 "(노상래 감독 대행이) 신인급 선수들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보란 듯이 고참을 폭행했다. 연습 경기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선수의 배를 향해 공을 수차례 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 당일 날 향해 에너지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고 라인업에서 빼버리겠다고 협박했던 일도 있었다. 가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에서 흐릿할 거다. 난 그날 이후 선수로 대성하지 못해도 경기장에서 폭력을 쓰는 사람이 쉽게 지휘봉을 잡게 놔두진 않을 거라고 다짐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임민혁은 "군자의 복수는 십 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는 말이 떠오른다.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오늘날 노상래 대행과 날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하다"라며 "축구계 일각에선 좋은 사람으로 평가가 자자하시더라. 악은 언제나 곁에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8년 후인 오늘 대행직으로 그런 일을 다시 재연할 리도 만무하겠지만 그럼에도 과거사는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글을 남긴다”라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피해자들이 고통받았던 만큼만 고통받으면서 살아가라”라고 했다.

임민혁은 “공식 사과할 마음도 없겠지만 나 역시도 용서할 생각이 없다. 그래도 일말의 죄책감이나 최소한 양심의 가책은 느끼길 바란다”라며 “폭력도, 폭언도 없는 체육계의 변화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노상래 감독 대행은 선수 시절 전남드래곤즈, 대구FC 등에서 활약한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였다. 은퇴 이후엔 전남드래곤즈, 강원FC 등에서 지도자로 활동했다. 최근엔 울산 유스 디렉터로 활동하다가 지난 9일 신태용 감독의 뒤를 이어 울산 감독 대행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울산 지휘봉을 잡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폭행 논란이 등장했다. 아직 임민혁의 주장만 나왔기에 사실 여부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임민혁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강등권에 빠져 있는 울산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 임민혁의 <노상래 감독대행께 드리는 편지> 전문
울산이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고 노상래 대행 체제로 들어선다는 뉴스를 보고,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켜습니다.

저와의 인연은 2017년, 제가 신인으로 전남 드래곤즈에 입단했을 때 사제 지간으로 시작되었죠.

신인 골키퍼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K리그1에 데뷔시켜 준 감독님이라 마음 한켠에 감사함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뉴스를 본 뒤부터 손발이 덜덜 떨리고, 하던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 대행님, 그때의 만행을 기억하십니까?

신인급 선수들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고 보란 듯이 고참을 폭행했죠. 연습경기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선수의 배를 향해 공을 수차례 찼던 일인데요? 그리고 경기 당일, 저를 향해 에너지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고 라인업에서 빼버리겠다고 협박했던 일인데요? 가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에서 흐릿하시겠죠.

저는 그날 이후 다짐했습니다. 제가 선수로 대성하진 못해도, 경기장에서 폭력을 쓰는 사람이 쉽게 지휘봉을 잡게 놔두진 않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제 바람이 무색하게 거의 10년이란 세월이 지나서야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군자보구 십년불만.

‘군자의 복수는 십 년이 지나도 늦지 않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뭐, 복수까지는 아니지만 오늘날의 대행님과 저를 두고 하는 말 같기도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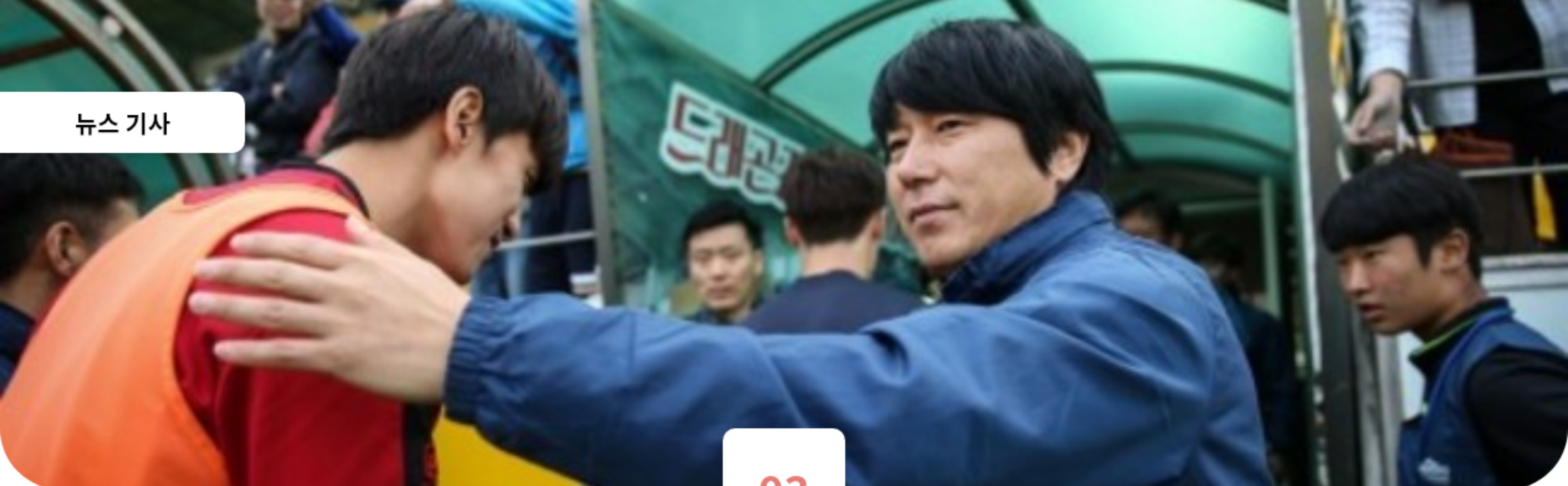
축구계 일각에서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가 자자하시던데, 유대인을 가스실에 보냈던 독일 공무원들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부모, 자식, 친구였을 평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악은 그렇게 언제나 곁에 조용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자식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식도 소중한 것을 지금은 조금 아시려나요?

돌이켜보면 주전 선수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다정했던 감독이었기에, 오늘 이 글에 동의하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을 것입니다. 8년 후인 오늘, 대행직으로 그런 일을 다시 재연할 리도 만무하겠지만, 그럼에도 과거사는 바로잡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짜고짜 앞길을 막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이 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한 마음도 서서히 녹아내리더군요.



03

그러나 응원할 생각도 없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피해자들이 고통받았던 만큼만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십시오.

공식 사과할 마음도 없으시겠지만, 저 역시 용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도 일말의 죄책감이나 최소한 양심의 가책은 느끼길 바라며 마음 무겁게 글을 씁니다. 글은 잘 써지는데 마음이 무거운 적은 처음입니다.

오늘 이 무거운 사제 간의 편지가 폭력도, 폭언도 없는 체육계의 변화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교체도·인원도 없다" 시골 농구부의 기적…법성고, 5명 중 3명 국가대표·프로팀 '발탁'

프레스시안 박아론 기자

2025.10.06.07:03:00

일러스트=프레스시안(박아론)

"도전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뛰었는데...(발탁)됐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이제는 꿈의 무대에서 공을 던질 수 있어요."

총 농구부원 5명 중 무려 3명이 프로선수와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쾌거를 안아 주목을 받은 시골의 작은 학교 농구부가 있다.

바로 전남 영광군 법성고 농구부다. 이들 중 기적같은 주인공은 국가대표에 뽑힌 이한울(18·센터 183cm)과 프로팀에 진출 예정인 김민경(18·센터, 183cm), 이은서(18·가드, 173cm) 선수다.

"도전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뛰었는데...(발탁)됐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이제는 꿈의 무대에서 공을 던질 수 있어요."

총 농구부원 5명 중 무려 3명이 프로선수와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쾌거를 안아 주목을 받은 시골의 작은 학교 농구부가 있다.

바로 전남 영광군 법성고 농구부다. 이들 중 기적같은 주인공은 국가대표에 뽑힌 이한울(18·센터 183cm)과 프로팀에 진출 예정인 김민경(18·센터, 183cm), 이은서(18·가드, 173cm) 선수다.

대신 김민경 선수와 이은서 선수가 '2025 여자 프로농구(WKBL) 신인 드래프트'서 이름이 불리던 순간을 떠올리며 박찬 기쁨을 전했다.

김민경 선수와 이은서 선수가 본격적으로 농구를 시작한 때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매년 선수를 찾아 전국을 수소문해 다니는 남인영 법성고 교사로부터 중학교 3학년 시절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경남 사천시와 완도에서 각각 가족과 떨어져 법성고로 향했다.



04

두 선수 다 망설임은 없었다. 운동에 대한 흥미가 있었고, 남 교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다만 소위 엘리트 코스라고 하는 수순을 밟지 않은 채 늦은 시기 첫 발을 내디뎌 막연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막막함은 있었다.

준비 없이 연습 2~3개월만 첫 경기를 뛰었던 날. 역시나 예상대로 큰 기량 차를 실감하며 무참히 참패했다. 남 교사는 선수들의 짧은 구력과 기본기가 갖춰져 있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여 프로그램을 재조정했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기본기를 충실히 다져나가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어 선수들의 강점을 찾아 포지션을 부여하고, 각자 기량에 따른 집중 훈련을 실시했다.



05

엘리트 체육 vs 스포츠 클럽, 경쟁 아닌 상생의 해법을 찾아서

CBS노컷뉴스 김조휘 기자

2025-10-12 06:00

일러스트=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최근 배구계 안팎에서는 엘리트 체육과 스포츠 클럽 간의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엘리트 체육 관계자들은 "스포츠 클럽 현장에는 각종 지원금이 늘어나는데, 정작 선수를 육성하는 엘리트 체육은 예산이 줄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지원이 줄어든 만큼 선수 수급과 팀 운영에 어려움이 커졌다는 하소연이다.

엘리트 체육은 선수 육성의 뿌리를 지켜왔지만 최근 들어 스포츠 클럽 중심의 생활체육 정책이 강화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한국 체육의 구조적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특히 선수 수급난이 심각하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팀 유지가 어렵고, 우수 선수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 부담도 커졌다. 이는 최근 여자 배구의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네이션스 리그(VNL) 강등을 비롯한 국제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이를 스포츠 클럽 지원 확대의 영향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한국배구연맹(KOVO)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에는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프로 선수를 많이 배출한 학교는 그만큼 지원금을 많이 받아왔다. 하지만 남자부는 2022년, 여자부는 2023년부터 지원금 배분 방식이 바뀌었다.

연맹의 신인 선수 선발 드래프트 시행 세칙 제11조(학교 지원금) 제2항 '학교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초중고 등 학교 지원금은 선발 시점 출신 구분 없이 상기 고정금으로 각 학교에 배분한다. 대학 학교 지원금의 경우에만 입단금 순위로 차등 배분해 지급한다.

매년 많은 프로 선수를 배출하는 배구 명문 학교 입장에서 지원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스포츠 클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연맹 관계자의 설명이다.



05

스포츠 클럽의 현실도 녹록지 않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중심의 지원은 일부 클럽에 한정돼 있고, 대부분의 민간 클럽은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 속에 운영난을 겪고 있다. 매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한 스포츠 클럽 관계자는 "내년부터 지원금이 끊긴다는 얘기도 나온다.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클럽으로서는 매일 불안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스포츠 클럽이란 국민이 자발적·지속적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정부는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우수 선수 육성과 은퇴 선수들의 지도자 활용을 통한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스포츠 클럽 정책을 마련했다.

대한배구협회는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위해 올해 디비전 리그를 출범해 운영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디비전 리그는 생활체육에서 출발해 점차 전문체육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선순환 구조를 갖추려면 해결해야 할 큰 숙제가 있다. 두 영역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갈등만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엘리트 체육이 '선수 육성'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스포츠 클럽은 '사업'과 '운영 지속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권동환 연현중 감독은 "스포츠 클럽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엘리트 체육으로 넘어와 좋은 선수가 돼야 한다"면서 "일본이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은 스포츠 클럽과 엘리트 체육 모두 규모가 크고 활성화돼 있다"면서 "반면, 한국은 스포츠 클럽과 엘리트 체육을 구분 짓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재남 일신여상 감독은 "스포츠 클럽은 엄연히 사업"이라면서 "엘리트 체육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목적인데, 스포츠 클럽과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연계될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어 김재남 감독은 "스포츠 클럽에서 잘한다고 하는 아이들이 엘리트 체육에 오면 얼마 못 버티고 그만둔다"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했던 아이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스포츠 클럽과 엘리트 체육의 수준 차이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05

그럼에도 엘리트 체육 현장에서는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스포츠 클럽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후인정 수성고 감독은 "최근 클럽에서 데려온 선수들이 꽤 많다"면서 "당장 급하니까 데려오는데, 솔직히 엘리트로 키우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나도 이번 대회가 끝나면 스포츠 클럽을 한 바퀴 돌 계획"이라면서 "그만큼 선수 수급이 잘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스포츠 클럽 입장에서조차 엘리트 체육으로 전향해 프로에 진출하는 선수를 배출하길 바란다. 하지만 엘리트 체육의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 탓에 이 같은 사례가 나오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스포츠 클럽을 운영 중인 임도현 삼성화재 단장은 "스포츠 클럽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이 엘리트 체육으로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엘리트 체육에 적응하기 힘들면,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엘리트 체육은 성적 위주로 훈련하지만 스포츠 클럽은 흥미 위주라 성적도 중요하지만 연령별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흥미를 쌓게 해야 한다"면서 "성적을 내기 위해 강압적으로 하면 선수들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목표를 설정해 주고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스포츠 클럽 관계자는 엘리트 체육과 함께 경쟁하는 대회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엘리트 체육도 클럽을 보고, 클럽도 엘리트 체육을 보며 성장해야 한다"면서 "클럽 선수들이 엘리트 체육 선수들과 같이 대회를 치르면서 이들을 동경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클럽의 인프라가 좋아지고, 사람이 많아져야 엘리트 체육에서 데려갈 명목이 생긴다"고 전제했다. 이어 "클럽이 작으면 엘리트 체육으로 가는 건 쉽지 않다"면서 "배구를 하는 사람이 많아져 데려갈 사람도 많아지고, 스포츠 클럽의 실력 안 좋더라도 하는 사람이 많아져 엘리트 체육이 살아난다"며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주장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지원금'이 아니라 '체계'다. 엘리트 체육과 스포츠 클럽이 상생하려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조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재능 있는 선수를 키우는 엘리트 체육의 전문성과 스포츠 클럽의 저변 확대 기능이 결합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한국 체육이 진정한 선순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엘리트 체육과 스포츠 클럽의 상생 모델이 절실하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